



초등 예비교사를 위한 현장교사 참여형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행연구

이연수¹, 이재용²

〈〈 요약 〉〉

이 연구는 초등 예비교사의 심리적 독립과 안녕감 증진, 그리고 생활지도 및 상담 역량 신장을 위해 현직 초등교사가 참여하는 현장교사 참여형 상담실습의 일환으로 그림책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실행연구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과정과 참여 경험에 나타난 변화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연구는 충북 소재 C교육대학교 3학년 초등 예비교사 173명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수행되었으며 계획-실행-관찰-성찰의 순환적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개선하였다. 자료는 참여자 소감문, 회기 보고서, 운영 결과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내용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그림책을 활용한 집단상담은 예비교사의 자기이해와 타인이해를 확장하고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적 성장을 촉진하는 교육적 경험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직 초등교사의 사례 기반 참여는 생활지도와 상담을 실제 교육 현장의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돕고 학생 이해와 상담 실천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실행연구의 순환적 개선 과정은 참여자의 요구와 현장의 맥락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점진적으로 정교화하였으며 그림책의 교육과정 연계와 실천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 예비교사의 정서적 성장과 상담 역량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실천적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현장교사 참여형 상담실습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과 확장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초등 예비교사, 현장교사 참여형,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행연구

1. 회인초등학교 교사, lys0929@naver.com (주저자)
2. 청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ducounsel@cje.ac.kr (교신저자)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래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인공지능의 발전, 교육 환경의 복합화는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새롭게 정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OECD는 Teaching Compass를 통해 미래 교사의 핵심 전문성을 교사 주체성(teacher agency), 교사 역량(teacher competencies), 그리고 교사 웰빙(teacher well-being)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특히 교사의 웰빙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머무르는 개념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과 웰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문성으로 제시되며 교사는 학생의 성장과 웰빙을 촉진하는 교육과정 변화의 주체이자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이끄는 전문적 실천가로 이해된다(OECD, 2025).

이러한 국제적 담론은 미래 교사의 전문성이 교과 지도 능력뿐만 아니라 학생의 심리·정서적 성장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역량까지 포함해야 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미래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교육 환경의 복합화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범위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박현주, 신주란, 편은진, 2024), 오늘날 초등교사는 교과 지식뿐 아니라 학급 공동체의 관계를 조직하고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며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 체계를 가동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장은영, 2025). 특히 담임교사는 학급 내 상호작용을 조율하고 갈등을 예방·중재하며 학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적응을 촉진하는 핵심 실천가로 기능한다.

그러나 신규교사에게는 이러한 다면적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면서 학급경영과 생활지도 장면에서의 즉각적인 판단과 개입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예비교사 또한 현장에서 학급을 운영하고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한다(Veenman, 1984). 이는 교사의 전문성을 단순한 교수·학습 역량이 아니라 학생과의 관계 형성, 생활지도와 상담, 그리고 교사 자신의 심리적 웰빙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OECD, 2025). 따라서 교사양성기관은 예비교사의 교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도와 상담역량뿐 아니라 심리적 웰빙과 관계 형성 역량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전문성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손은령, 2017).

그러나 초등 교원양성기관의 직전교육이나 교원 선발 제도만으로는 신규교사에게 요구되는 충분한 수준의 직무역량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학급경영, 관계 지도, 학부모 상담 등 실제 생활지도 영역에서 요구되는 실천역량을 체계적으로 훈련할 기회는 제한적인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재용, 최준섭, 2018). 예비교사의 전문성은 이론적 지식의 습득만으로 형성되기보다 실제 교육 장면의 복합성과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이를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한다(유신복, 송영명, 2025). 따라서 예비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생활지도와 상담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전문적 판단과 관계 형성 역량을 연습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돌봄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실천 중심 교육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단상담은 예비교사의 개인적 성장과 전문성 발달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다(현미정, 윤경희, 2016; 이은진, 이길동, 2012). 집단상담은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이해와 타인이해를 촉진하고 공감과 피드백, 자기개방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관계 형성 능력과 상담역량을 증진시키는 교육적 효과를 지닌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집단상담은 심리적 안녕감과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고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감소시키며 상담역량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류아영, 유순화, 최정임, 2020).

예비교사가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경험을 경청하며 공감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은 향후 학급 공동체를 운영하는 담임교사의 역할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강혜영, 1996; 오귀남, 1999). 실제로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에서 이루어진 집단상담 연구들은 예비교사의 자기이해와 타인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생활지도와 상담역량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교육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대학교 집단상담에 참여한 초등 예비교사들은 집단 내 정서적 유대와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이해와 타인이해를 심화하고 이를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와의 관계 형성 및 생활지도 역량으로 연결하여 인식하였으며(이재용, 최준섭, 2018), 중등 예비교사 역시 자기수용과 타인에 대한 공감, 상담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향후 학생 이해와 생활지도에 적용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강숙, 정소미, 2018).

한편, 그림책은 예비교사 집단상담에서 정서와 관계 경험을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물로 활용될 수 있다(이정구, 은혁기, 2024). 그림책은 이야기와 이미지라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개인이 직접 말하기 어려운 감정과 경험을 거리두기하여 탐색하도록 돕고 타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공감적 이해를 확장하게 한다(이연수, 임진영, 2024; 박은주, 박재우, 2024). 또한 그림책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매체이므로, 예비교사가 집단상담에서 경험한 그림책 기반 활동은 향후 학급 운영,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및 관계 증진 활동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이선영, 손현동, 2023; 김유진, 최준섭, 2022). 따라서 그림책을 활용한 집단상담은 예비교사의 심리적 성장과 상담역량을 지원하는 동시에 초등교육 현장에서 생활지도와 상담의 실천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연구는 주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거나 단일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을 보고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으며(이재용, 차영경, 장은영, 2025),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순환적으로 수정·보완하며 발전시키는 과정은 충분히 탐색하지 못하였다. 또한 대부분 언어적 상호작용 중심의 집단상담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그림책과 같은 매체 기반 집단상담의 교육적 가능성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으며 상담 전문성을 갖춘 현직 초등교사가 프로그램 운영과 성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현장교사 참여형 상담실습을 실행연구의 관점에서 탐색한 연구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 연구에서 ‘현장교사 참여형 상담실습’이란 현직 초등교사가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자로 참여하여 실제 학교 현장의 사례와 생활지도 경험을 공유하고 예비교사의 성찰과 전문성 발달을 지원하는 실천 중심 상담실습을 의미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학교 현장의 실제 맥락과 예비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긴밀하게 연결하며 프로그램의 실행과 성찰, 개선 과정에 현장교사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상담실습과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현장교사 참여형 상담실습은 예비교사의 실천지식 형성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교사양성교육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이재용, 최준섭, 2018).

이에 이 연구는 초등 예비교사의 심리적 독립과 안녕감 증진, 그리고 생활지도 및 상담 역량의 다차원적 전문성 지원을 목적으로 현직 초등교사가 참여하는 현장교사 참여형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실행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개발, 실행, 성찰 및 개선 과정을 탐색하고 참여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충북 소재 C교육대학교 3학년 예비교사 173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계획(Planning)-실행(Acting)-관찰(Observing)-성찰(Reflecting)의 순환 과정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 교육에서 현장교사 참여형 상담실습의 교육적 의미를 규명하고 그림책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운영 모형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예비교사의 심리적 성장과 생활지도 및 상담역량 형성을 위한 실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교사 참여형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계획-실행-관찰-성찰의 순환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운영·개선되었는가?

둘째, 현장교사 참여형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실행연구의 순환적 개선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예비교사의 참여 경험과 만족도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셋째, 현장교사 참여형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운영과 순환적 개선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교사양성기관의 상담실습 및 생활지도 교육에 어떠한 교육적 함의를 제공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실행연구(Action Research)

이 연구는 초등 예비교사의 심리적 독립과 안녕감 증진, 생활지도 및 상담역량의 다차원적 전문성 지원을 목적으로 현장교사 참여형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연구(Action Research) 방법을 통해 이를 반복적으로 평가·개선하였다. 실행연구는 특정 현장과 맥락에서 발생하는 실천적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연구자와 참여자가 계획(Planning)-실행(Acting)-관찰(Observing)-성찰(Reflecting)의 나선형 순환 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전을 통합하며 변화를 유도하는 참여적 연구 방법론이다(이용숙 외, 2004). 이 연구는 Kemmis와 McTaggart(1988)의 실행연구 모델을 바탕으로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총 4차 실행주기를 거쳐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다. 각 프로그램의 단계별 주요 활동 및 내용, 세부 활동은 <표 1>과 같다.

<표 1> 프로그램 설계 과정

단계	주요 활동 및 내용	세부 활동
계획 단계 (Planning)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토대 마련 및 구조 설계	연구 동향 분석 프로그램 목적 정립 자료 선정 및 설계
실행 단계 (Acting)	설계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및 운영	프로그램 적용 운영자 구성 주요 활동 수행
관찰 단계 (Observing)	프로그램 실행과정 중 자료 수집 및 기록	참여자 반응 관찰 자료 수집 영향 기록
성찰 단계 (Reflecting)	프로그램 평가 및 다음 실행 주기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데이터 분석 수정 및 보완 지속적 개선

첫째, 계획 단계에서는 기존 국내외 사회정서역량 증진 및 그림책 활용 프로그램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다. 특히 이연수와 임진영(2024)의 초등학생 대상 그림책 기반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이를 초등 예비교사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전환·재구성하였다. 개발 과정에서는 예비교사의 사회정서역량과 생활지도 및 상담역량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핵심 영역을 자기이해, 타인이해, 관계이해로 설정하고 각 영역에 적합한 그림책과 활동을 선정하였다. 원 프로그램의 10회기 구성은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4회기로 축소·재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현장교사 참여형’이란 상담 전문성을 갖춘 현직 초등교사가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성찰 및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현장교사는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현직 초등교사로서 집단상담 회기를 직접 진행하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경험한 학생 생활지도 및 학부모 상담 사례를 그림책 활동과 연결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회기 종료 후 연구자와 참여자 반응 및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다음 실행 주기의 프로그램 수정·보완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교수자 중심의 이론 전달식 상담교육이나 일회적 외부 전문가 특강과 달리, 예비교사가 실제 초등학교 현장의 맥락성을 지닌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지도 및 상담역량을 간접적으로 체득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이재용, 최준섭, 2018).

둘째, 실행 단계에서는 총 4회기의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각 회기는 80~100분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림책 읽기, 감정과 경험 나누기, 자기이해 활동, 타인이해 활동, 관계 증진 활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운영 과정에서는 개별 나눔, 소집단 나눔, 전체 집단 나눔을 병행하여 예비교사의 자기개방, 상호소통, 공감, 피드백을 촉진하였다. 또한 현장교사는 그림책 활동과 초등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사례를 연결하여 예비교사들이 향후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도록 지원하였다.

셋째, 관찰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회기별 소감문,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만족도 결과, 연구자의 운영일지 등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나타난 예비교사의 자기이해, 정서적 성장, 타인이해, 초등 현장 이해, 생활지도 및 상담역량 형성 경험을 분석하였다.

넷째, 성찰 단계에서는 분석 결과와 참여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강점과 개선점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다음 실행 주기의 계획 단계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프로그램은 실행 주기별로 그림책 선정, 활동 구성, 운영 방식, 현장 사례 제공 방식 등을 지속하여 수정·보완하였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충북 소재 C교육대학교에서 운영된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 예비교사 173명과 현장교사 1명이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지도와 상담’ 강좌와 연계된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예비교사들은 3학년 재학 중 1학기 또는 2학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집단상담은 그림책 탐색, 자기이해, 타인이해, 관계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는 반구조화된 형태로 운영되었고 1명의 현장교사와 10명 내외의 집단원이

주 1회 2시간씩 총 4주, 8시간에 걸쳐 참여하였다.

이 연구에서 동질집단과 이질집단은 참여자의 전공이나 교육과정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동일한 분반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는지, 혹은 수강 일정 등의 학사 운영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심화전공 소속 학생들이 함께 편성되었는지에 따른 운영상의 구분이다. 교육대학교는 심화전공별로 분반이 편성되어 있으나 모든 전공이 동일한 초등교육학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은 큰 틀에서 동질적인 초등 예비교사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목표, 회기 구성, 운영 절차, 운영자는 집단 구성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구체적인 참여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현황

구분	집단상담 운영 시기								합계
	2022		2023		2024		2025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참여 심화전공	미술, 영어	과학, 컴퓨터	미술, 체육	과학, 수학	미술, 영어	국어, 컴퓨터	영어, 음악	국어	-
대상 수(명)	23	23	29	24	16	22	26	10	173

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프로그램의 계획, 실행, 관찰 및 성찰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주요 자료는 참여자의 회기별 보고서, 소감문,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만족도 결과, 연구자의 운영일지 등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텍스트, 그림, 상징 등 다양한 자료에 담긴 의미와 맥락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범주화함으로써 현상의 구조를 이해하는 연구 방법이다(Mayring, 2000). 특히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미 단위를 추출하고 유사한 의미를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에 내재된 의미를 도출하는 데 유용한 분석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최성호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경험과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질적 내용분석 절차를 적용하였다.

분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자는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정독하며 참여자의 경험이 드러난 문장 또는 문단을 의미단위로 추출하였다. 둘째, 추출된 의미단위를 중심으로 개방코딩(open coding)을 실시하였다. 셋째, 유사한 의미를 지닌 코드를 묶어 하위범주를 도출하고 하위범주 간의 공통성과 차이를 비교하여 상위범주를 구성하였다. 넷째, 도출된 범주가 연구문제와 프로그램의 실행 주기를 적절히 설명하는지 검토한 후 최종 범주를 확정하였다.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가 수행한 1차 분석 결과를 상담학 및 교육학

연구 경험을 가진 공동연구자와 현장교사가 함께 검토하였다. 범주의 명칭이나 의미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원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협의를 거쳐 수정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회기별 보고서, 소감문,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만족도 결과를 상호 비교하는 자료 삼각검증을 실시하여 특정 자료에 의존한 해석을 줄이고자 하였다. 실행연구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구자와 현장교사의 성찰 및 협의 과정을 거쳐 다음 실행 주기의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식은 순환적으로 수정·보완되었다.

4. 연구의 엄밀성 및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인 예비교사 173명은 ‘생활지도와 상담’ 교과와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의 하나로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자체는 3학년 학생에게 요구되는 비교과 이수 과정의 일부였으나, 다수의 비교과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인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와 연구 참여는 구분하여 안내하였다.

연구자는 매 학기 프로그램 시작 시 회기별 소감문과 관련 자료가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자료 활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이수나 평가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였다. 수집된 소감문과 보고서는 학기, 학년도, 소속 전공 단위로 정리하였으며 논문 작성 과정에서는 참여자를 알파벳 코드로 표시하여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익명 처리하였다. 모든 자료는 암호화된 디지털 저장장치에 보관하였으며 연구 종료 후 일정 기간 보관한 뒤 폐기 절차에 따라 삭제할 예정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자료 분석에 모두 참여하였다. 이러한 연구자의 이중적 역할은 실행연구의 특성상 연구 현장을 깊이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신이 운영한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

이러한 편향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첫째, 참여자의 회기별 보고서, 소감문,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만족도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상호 비교하였다. 둘째, 매 학기 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 현장교사와 사후 협의회를 진행하여 운영 경험, 참여자 반응, 개선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참여자의 실제 진술과 실행과정에서 관찰된 변화에 근거하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성찰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 실행 주기의 계획 단계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실행연구의 순환적 특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III. 연구 결과

1. 현장교사 참여형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 설계·운영·개선 과정

현장교사 참여형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총 4차의 실행 주기를 거치며 계획-실행-관찰-성찰의 순환 과정을 반복하였다. 각 실행 주기에서는 참여자의 경험과 운영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이러한 개선 과정은 회기 구성과 그림책 선정, 활동 내용, 운영 방식 전반에 반영되었다. 프로그램의 회기별 설계 내용과 연간 운영 절차는 <표 3>과 <표 4>와 같다.

<표 3>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 1~4차(2022~2025학년도) 설계

회기	단계	차시별 목표	활용 그림책 및 활동 내용			
			2022	2023	2024	2025
1	그림책 살펴보기	그림책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고구마구마」를 읽고 재미있게 자기소개하기 ▶ 「이 작은 책을 펼쳐봐」를 읽고 함께 그림책을 읽으면 좋은 이유 알기 ▶ 「팔방수의 전설」을 읽고 그림책 흥미 일으키기 ▶ 그 외 그림책 50여 권을 읽으며 그림책과 친해지기			
2	자기 이해	자기 내면과 감정을 들여다보고 자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나는 () 사람이 에요」를 읽으며 나 이해하기 ▶「불 뿜는 용」을 읽으며 내 감정 다스리기	▶「나는 () 사람이에 요」를 읽으며 나 이해하기 ▶「불 뿜는 용」을 읽으며 내 감정 다스리기 ▶「슈퍼거북」을 읽고 진정한 나다움 알기	▶「나는 나의 주인」을 읽으며 나 이해하기 ▶「나는 가끔 화가 나 요!」를 읽으며 내 감정 다스리기 ▶「슈퍼거북」을 읽고 진정한 나다움 알기	
3	타인 이해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편견을 해소하며 타인을 포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난 네가 부러워」를 읽고 친구 장점 찾기 ▶「이파라파 나무 나무」를 읽고 편견 버리기	▶「난 네가 부러워」를 읽고 내 장점 찾기 ▶「이파라파 나무 나무」를 읽고 편견 버리기 ▶「들어와 들어와」를 읽고 교실 공동체 놀이하기	▶「난 네가 부러워」를 읽고 내 장점 찾기 ▶「이파라파 나무 나무」를 읽고 편견 버리기	
4	관계 이해	친구의 진정한 의미를 고찰하고 소통과 나눔을 통해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뚝, 딱」을 읽고 관계의 의미 알기 ▶「친구에게」를 읽고 진정한 친구 책 만들기 ▶「친구의 전설」을 읽고 친구의 의미 생각하기			

〈표 4〉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 1차~4차(2022~2025학년도) 운영

단계	1~4차 (2022~2025)		내용	비고
	1학기	2학기		
준비	2-3	8-9	프로그램 계획 및 준비	· 현직교사 간담회 및 교사 인력풀 구성 · 학과별 안내 및 신청 접수 · 강의실 및 기자재 점검
운영	3-4	9-10	프로그램 운영	· 주 1회 2시간, 전체 4주(8시간) 운영
조사	4-6	10-11	만족도 및 추수 프로그램 수요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평가	6-7	11-1	평가 간담회 및 추수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 논의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여부 결정
보고	차년도 2월		결과보고	· 사업평가 및 다음 학년도 계획

가. 초기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가능성 확인(2022학년도 1차 실행)

이 연구의 현장교사 참여형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이연수(2022)가 개발한 초등학교 3학년 대상 그림책 기반 토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토대로 예비교사 교육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개발하였다. 원 프로그램은 토래관계 증진과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목표로 총 10회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림책을 매개로 아동의 관계 형성과 정서 표현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확인된 프로그램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림책 기반 접근이 예비교사의 자기이해와 관계 형성, 생활지도 및 상담역량 향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재구성이 이루어졌다. 첫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성된 그림책과 활동을 예비교사의 발달 수준과 정서적 요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를 위해 「고구마구마」, 「이 작은 책을 펼쳐봐」, 「팔빙수의 전설」 등을 활용하여 그림책에 대한 흥미를 형성하고 「나는 () 사람이에요」 등 성인 학습자의 자기성찰을 촉진할 수 있는 그림책을 새롭게 선정하였다. 둘째, 비교과 상담실습이라는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원 프로그램의 10회기를 핵심 주제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4회기로 축소하였다. 또한 회기별 목표를 '자기이해-타인이해-관계이해'의 흐름으로 구조화하여 사회정서역량이 자기이해에서 관계이해로 확장되도록 설계하였다. 활동 진행 방식과 회기 운영 절차는 원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내용과 매체는 예비교사 대상 집단상담의 목적에 맞게 새롭게 구성하였다.



[그림 1~10] 1차(2022학년도) 프로그램 활용 그림책

1차 실행 결과,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예비교사의 자기이해와 타인이해를 촉진하고 정서 표현과 공감 경험을 확장하는 데 교육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상담 전문성을 갖춘 현직 초등교사가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은 실제 교실과 생활지도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교직 수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며 현장 적응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실행과정에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운영 일정 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그림책 활동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생활지도의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활동 방식이 일부 매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참여 활동을 경험하고자 하는 요구도 나타났다.

이러한 성찰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 실행 주기에서 프로그램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체험 중심 활동을 확대하며 그림책과 생활지도·교과 수업의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하기로 계획하였다. 따라서 1차 실행은 그림책 기반 집단상담의 교육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후 실행 주기의 개선 방향을 도출한 초기 실행 단계로 기능하였다.

나. 체험 중심 운영으로의 전환과 현장 적용성 강화(2023학년도 2차 실행)

2023학년도 2차 실행에서는 1차 실행에서 도출된 운영상의 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체험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이 그림책 활동을 직접 경험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 매체와 운영 방식을 일부 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3회기 '타인이해'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경험과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적용하였다. 첫째, 「이파라파 나무나무」 활동에서는 기존의 클레이 활용 방식이 일회성 체험에 머무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마시멜로를 활용하도록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활동 참여도와 매체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들어와 들어와」를 활용한 비빔밥 놀이 활동을 새롭게 도입하여 공동체 경험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는 해당 놀이에 익숙하지 않은 예비교사들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도입한 활동이었으나, 실행과정에서는 활동이 다소 산만하게 진행되는 모습이 관찰되어 운영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1~12] 2차(2023학년도) 프로그램 추가 그림책

2차 실행 결과, 1차 실행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체험 중심 활동을 강화한 프로그램은 예비교사의 학습 몰입과 실천적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그림책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그림책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였으며 이를 교육실습과 향후 수업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하였다. 또한 그림책을 매개로 한 자기성찰과 집단 상호작용은 정서적 안정과 회복 경험을 제공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장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실행과정에서는 새로운 개선 과제도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기회의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교육실습 이후에도 프로그램 내용을 지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림책 자료와 활동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현직 교사 및 동료 예비교사들과 지속하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성찰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 실행 주기에서 ① 그림책 활용 자료를 체계화하고 ② 교육실습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③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사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기로 계획하였다. 따라서 2차 실행은 체험 중심 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

을 구체화한 실행 단계로 기능하였다.

다. 프로그램 내용의 정교화와 추수 프로그램 운영(2024학년도 3차 실행)

3차 실행 계획에는 정규 4회기 프로그램 종료 이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추수 프로그램 운영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추수 프로그램은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3~4학년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방학 중 특강 형태로 운영되었다. 정규 회기에서는 그림책을 감상하고 매개물로 활용하는 경험이 중심이었던 데 비해, 참여자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그림책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요구가 지속하여 제기되었다. 이에 추수 프로그램은 그림책 제작 활동을 중심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정규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한 그림책에 대한 정서적 관심을 수용자의 경험에서 창작자의 경험으로 확장하고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그림책을 매개로 한 자기표현과 성찰의 기회를 지속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추수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이후 2025년과 2026년 방학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2024학년도에는 앞선 두 차례의 실행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그림책과 활동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의 발달 수준과 프로그램의 교육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그림책의 문화적 맥락과 정서적 수용성을 중심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다. 첫째, '자기 이해' 단계에서 활용하던 「나는 () 사람이에요」는 외국 번역서가 지닌 정서적 거리감을 보완하고자 한국적 맥락에서 자기성찰을 촉진하는 「나는 나의 주인」으로 교체하였다. 둘째, 기존의 「불 뿜는 용」은 예비교사의 발달 수준에 비해 다소 유아적이라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정 이해와 조절 활동에 적합한 「나는 가끔 화가 나요!」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수정은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의 제안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실행연구의 순환적 개선 과정을 구체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15~19] 3차(2024학년도) 프로그램 활용 그림책 변경 목록

3차 실행 결과, 2차 실행에서 도출된 체험 중심 운영과 현장 적용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적합성과 교육적 연계성을 정교화한 결과, 예비교사들은 그림책을 생활지도뿐 아니라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특히 그림책을 활용한 상담 활동을 실제 수업 사례와 함께 제시한 점은 생활지도와 교과 지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교육 실습과 향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그림책을 매개로 한 집단 상호작용은 동료 간 정서적 교류와 공감 경험을 촉진하고 협력적 공동체 형성에도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행과정에서는 새로운 개선 과제도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데 따른 참여 시간의 제약과 피로감을 호소하였으며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그림책의 발달 적합성과 문화적 맥락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함께 교과 성취기준 및 실제 수업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성찰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 실행 주기에서 그림책의 교육과정 연계성을 강화하고 참여자가 그림책을 활용한 생활지도 및 상담 활동을 직접 설계하고 적용해 보는 실습 요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추수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정규 프로그램과 사후 심화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운영 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실천성을 높이려 하였다.

따라서 3차 실행은 프로그램의 내용 적합성과 교육적 활용성을 정교화하는 동시에, 정규 프로그램과 추수 프로그램을 연계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이후 실행 단계의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실행 주기로 기능하였다.

라. 교육과정 연계 및 프로그램의 안정화(2025학년도 4차 실행)

2025학년도 4차 실행에서는 3차 실행에서 확인된 교육과정 연계 강화와 실천 중심 활동 확대

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다. 특히 예비교사들이 그림책을 단순히 감상하거나 상담의 매개물로 활용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실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생활지도 장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실천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첫째, 그림책 활용 활동을 질문 생성, 감정 나누기, 독후 활동, 교과 연계 활동 등으로 체계화하여 예비교사들이 실제 수업 설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 구성 방식을 보완하였다. 둘째, 그림책을 활용한 생활지도 사례와 학급 운영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그림책이 상담뿐 아니라 교과 수업과 학급경영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육적 가능성을 확장하였다. 셋째, 참여자들이 직접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과 상담 활동을 구상하고 발표하는 실습 요소를 강화하여 그림책 활용 경험이 실제 교수·학습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정은 앞선 실행과정에서 제기된 교육과정 연계 요구와 실천 중심 활동 확대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과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정이었다.



[그림 20~30] 4차(2025학년도) 프로그램 활용 그림책

4차 실행 결과, 3차 실행에서 정교화된 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연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강화한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예비교사의 교수·학습 설계 인식과 상담 실천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확장하는 단계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을 질문 생성, 감정 공유, 독후 활동 등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한 점은 예비교사들이 이를 교과 수업과 생활지도에 유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림책을 상담 매체로 활용하는 경험은 학생과의 관계 형성과 정서적 소통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며 상담과 수업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확장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행과정에서는 초등 교육과정 성취기준과의 구체적 연계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수업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활동 설계 가이드 및 실습형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새롭게 도출되었다. 또한 그림책이 새로운 교수·학습 도구로 인식되면서 창의적 활용 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찰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예비교사의 심리적 성장 뿐 아니라 생활지도와 상담, 교과 수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행연구를 통해 축적된 개선 결과를 최종 프로그램 운영 모형으로 체계화하고 향후 교사양성기관의 상담실습과 생활지도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 프로그램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4차 실행은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연계성과 현장 적용성을 구체화하는 단계이자, 실행연구를 통해 축적된 개선 결과를 통합적으로 구조화하여 현장교사 참여형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가능성을 확인한 실행 단계로 기능하였다.

2. 현장교사 참여형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순환적 개선과 만족도 변화

이 연구는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총 4회의 실행 순환을 계획-실행-관찰-성찰의 과정을 반복하며 수행하였다. 각 실행 주기에서 도출된 성찰과 개선 내용은 다음 실행의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순환적 개선 과정과 만족도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11>과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1〉 실행연구 순환별 문제-수정-변화 요약

순환	계획	실행	관찰	성찰
1차 (2022)	▶ 이연수·임진영 (2024) 프로그램을 예비교사 대상 4회기로 재구성 (자기-타인-관계이해 축)	▶ 미술 활동 중심 그림책 회기 운영	▶ 프로그램 안내가 촉박해 일정 조정에 어려움을 표현함 ▶ 미술 활동 중심 구성에 부담을 느낌 ▶ 그림책의 교과 연계 방법 안내 부족	▶ 활동 방식의 다양화, 사전 안내 시점 개선 필요성 인식
2차 (2023)	▶ 체험 중심 활동을 강화한 회기 구성	▶ 클레이, 놀이 등 체험형 활동 운영	▶ 참여도 지표는 상승했으나 내용 적합성·전체 만족도 등은 소폭 하락 ▶ 활동 중 산만함 발생 ▶ 참여 기회 확대 및 사후 지원 요청	▶ 체험 활동 강화가 몰입은 높였으나 내용 전반의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인식 ▶ 참여 집단(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 성찰

3차 (2024)	▶ 발달·문화적 적합성 기준으로 그림책 재선정 ▶ 추수 프로그램(그림책 제작) 도입	▶ 그림책 교체 운영 ▶ 방학 중 추수 프로그램 운영	▶ 내용 적합성·운영 만족도 회복 ▶ 정규 교과목 편성 요구와 시간적·체력적 부담이 동시에 제기됨	▶ 텍스트 재구성을 통해 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심화 ▶ 정규 교과목 편성 요구는 제도적 한계로 실행연구 내 직접 해결이 어려움을 인식
4차 (2025)	▶ 초등 교육과정 성취기준과의 연계 강화 ▶ 실습형 활동 설계	▶ 질문 생성·감정 공유·독후 활동 구조화 ▶ 성취기준 연계 사례 안내	▶ 만족도 지표 전반 상승·안정화 ▶ 성취기준과의 구체적인 연계 방법에 대한 안내 부족이 새롭게 제기됨	▶ 성취기준 연계 가이드 마련의 필요성 인식

1차 실행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찰을 통해 활동 방식의 다양화와 운영 안내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성찰은 2차 실행에서 체험 중심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반영되었다. 2차 실행에서는 체험 활동의 강화로 참여자의 몰입도는 높아졌으나 내용 전반의 만족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3차 실행에서는 그림책의 발달적·문화적 적합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3차 실행에서는 그림책 텍스트의 재선정과 추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4차 실행에서 그림책과 초등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습 중심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반영되었다. 한편, 3차 실행에서 제기된 정규 교과목 편성 요구는 교육과정 운영 체계와 관련된 제도적 과제로, 단일 프로그램 차원의 실행연구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 실행 주기에서 도출된 관찰과 성찰은 다음 실행의 계획에 지속하여 반영되면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그 결과 현장교사 참여형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예비교사의 심리적 성장과 생활지도 및 상담역량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모형으로 정교화되었으며 그림책 역시 상담과 교과 수업을 연계하는 실천적 매체로서의 활용가능성이 점차 구체화되었다.

〈표 12〉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 1~4차 만족도 결과

구분	2022 (1차)		2023 (2차)		2024 (3차)		2025 (4차)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내용 적합성	4.87	4.93	4.76	4.88	5.00	4.91	4.88	5.00
운영 적절성	4.84	4.95	4.77	4.88	5.00	4.91	4.81	5.00

구분	2022 (1차)		2023 (2차)		2024 (3차)		2025 (4차)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성장 도움 인식	4.83	4.88	4.71	4.88	4.75	4.91	4.88	5.00
강사 만족도	4.86	4.95	4.77	4.92	4.88	4.91	4.96	4.90
전체 만족도	4.81	4.94	4.74	4.83	4.88	4.81	4.85	5.00
참여도	4.59	4.69	4.74	4.79	4.81	4.81	4.81	4.90
역량 향상 인식	4.83	4.90	4.75	4.79	4.88	4.91	4.88	5.00
합계 평균	4.80	4.89	4.75	4.85	4.89	4.88	4.87	4.97

차수별 실행연구 결과와 만족도 분석을 종합하면, 본 프로그램은 계획-실행-관찰-성찰의 순환적 개선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 경험의 질과 교육적 적합성을 점진적으로 높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실행에서는 그림책 기반 집단상담의 교육적 가능성과 정서적 의미를 확인하는 동시에 운영 시기, 활동 구성, 교과 연계성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차 실행에서는 체험 중심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참여도는 1차(4.59/4.69)보다 2차(4.74/4.79)에서 향상되어 참여자의 능동적 몰입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용 적합성, 운영 적절성, 전체 만족도 등 일부 지표는 1차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이는 체험 중심 활동이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으로까지는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부 참여 집단에서는 그림책을 매개로 한 성찰 중심 활동보다 체험과 상호작용 중심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 프로그램 내용과 활동 방식 간의 적합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3차 실행에서 그림책 텍스트와 활동 내용을 발달적·문화적 적합성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표 12>의 만족도 결과를 전 차수에 걸쳐 살펴보면 몇 가지 경향이 확인된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별 응답 자료는 확보하였으나 비교집단이나 사전·사후 측정 자료가 없어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차수별 평균 변화와 경향성을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이는 실행연구에서 만족도 결과를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라기보다 다음 실행 주기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진단적 자료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전체 평균은 1차 4.80/4.89에서 4차 4.87/4.97로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실행과 성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참여도는 전 차수에서 다른 만족도 지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P/F 방식의 비교과 상담실습으로 운영되어 참여자들이 기존 교과목 외의 시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던 점과, 자기개방과 성찰을 요구하는 집단상담의 특성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참여도는 1차 이후 지속적

으로 상승하여 4차에는 4.90에 이르렀으며 이는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점차 참여자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하게 개선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2024학년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도에서 2학기의 만족도가 1학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2학기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종료 직후 교육실습을 앞두고 있어 그림책 활동과 상담 경험을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하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프로그램 종료 후 일부 참여자들이 교육실습에서 활용할 그림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프로그램 내용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려는 관심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만족도 결과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전반적인 수용성과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양적 근거로 기능하였으며 실행연구 결과는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실행과 성찰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질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특히 차수별 만족도의 안정적 유지와 점진적 향상은 계획-실행-관찰-성찰의 순환적 개선 과정이 프로그램의 교육적 적합성과 현장 적용성을 지속하여 높여 왔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실행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과정과 그에 따른 참여 경험의 변화를 질적 자료와 만족도 결과를 통합하여 제시함으로써 현장교사 참여형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교육적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현장교사 참여형 그림책 집단상담 참여 경험의 의미와 교육적 시사점

가. 그림책을 통한 자기이해와 심리적 안녕감 증진

참여자들은 그림책을 매개로 자신의 감정과 삶을 성찰하면서 자기이해를 심화하고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책은 자신의 경험을 직접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야기와 그림을 매개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도왔으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면을 탐색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그림책 속 인물과 상황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과정은 예비교사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험으로 이어졌으며 교사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자기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그림책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쉽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림으로 표현된 것을 통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림책을 통해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2022년 1학기 참여 학생 A_미술과 소감문)

“그림책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내가 자주 불리는 말', '내가 불리고 싶은 말', '내 작은 냄비' 등을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면서 나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졌다.”

(2022년 1학기 참여 학생 B_미술과 소감문)

이러한 경험은 이후 실행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그림책이 단순히 아동을 위한 읽기 자료가 아니라 성인 역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매체임을 새롭게 인식하였다. 특히 그림책을 함께 읽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은 학업과 교육실습, 임용 준비 과정에서 누적된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정서적 회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림책이 아이들이 보는 유치한 책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성인들도 그림책을 통해 위로받고 치유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즐거움을 아이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 1학기 참여 학생 D_미술과 소감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헤아리는 것이 나에겐 많이 없었고 혼자 살기 바빴는데 책도 읽고 같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훈훈했고 마음을 평안히 하게 해주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2023년 2학기 참여 학생 E_수학과 소감문)

“그림책은 어린 아이들이 재미를 위해서만 읽을 수 있다는 인식이 바뀔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인들도 읽으면서 감동을 느끼고 학생들의 재미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성장 측면에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2023년 2학기 참여 학생 F_수학과 소감문)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실행되면서 이러한 자기이해와 정서적 안녕감은 개인 차원에서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경험까지 확장되었다. 참여자들은 그림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동료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림책을 통한 공동의 경험 자체가 심리적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강사님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림책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초등학생)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제 주변 동기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며 힐링했던 시간이었어요. 다양한 활동과 예시를 접하면서 저도 그림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2024년 1학기 참여 학생 B_영어과 소감문)

이처럼 그림책 집단상담은 예비교사들이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정서적 안녕감을 회복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사 역시 자신의 마음을 돌보아야 학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전문적 성장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책이 자기이해와 심리적 안녕감을 촉진하는 상담 매체로 기능할 뿐 아니라, 예비교사의 사회정서학습 역량과 교사 전문성 형성을 함께 지원하는 교육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 현장교사 참여를 통한 생활지도 및 상담역량 형성

참여자들은 현직 초등교사가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실제 학교 현장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한 점을 본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현장교사는 그림책 활동을 실제 학생 지도와 학급 운영 사례에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생활지도와 상담을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적 지식으로 이해하도록 도왔다. 이러한 경험은 예비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생활지도와 상담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에 나갔을 때 교실의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개를 많이 해주어서 좋았다. 학급 운영에 있어서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되었다.”

(2022년 1학기 참여 학생 D_미술과 소감문)

“현장에 계신 초등교사 선생님으로부터의 수업을 들어보니 아이들을 대해야 하는 태도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큰 도움이 되었다.”

(2022년 1학기 참여 학생 E_미술과 소감문)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수업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교사분과 함께 하는 수업은 보통 퀄리티도 좋고 훨씬 와닿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좋습니다.”

(2022년 2학기 참여 학생 F_컴퓨터과 소감문)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개선되면서 이러한 현장 연계성은 사례 소개와 함께 예비교사가 직접 생활지도와 상담 활동을 체험하고 실천 방안을 구상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참여자들은 학생의 입장에서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과정이 향후 자신이 교사가 되었을 때 상담과 생활지도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너무 무겁지 않게 실습 형태로 진행된 점이 매우 좋았다. 교사의 입장이 아닌 학생의 관점에서 활동을 경험한 것이 이후에 비슷한 활동을 구성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2023년 1학기 참여 학생 A_미술과 소감문)

“상담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초등 상담 활동을 직접 해봄으로써 예비 초등교사로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될 때 매우 유익할 것 같다.”

(2023년 1학기 참여 학생 B_체육과 소감문)

“다양한 활동을 설명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보면서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4주라는 시간이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2학기 참여 학생 C_수학과 소감문)

또한 프로그램은 그림책을 생활지도와 상담뿐 아니라 실제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예비교사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참여자들은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교육실습과 향후 수업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하였으며 학교 현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림책으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몰랐는데, 유익하고 재미있게 수업을 구상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좋았다.”

(2024년 1학기 참여 학생 A_영어과 소감문)

“현장에서 학생들과 할 재밌는 활동을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024년 2학기 참여 학생 C_컴퓨터과 소감문)

마지막 실행 단계에서는 그림책을 상담 매체이자 교수·학습 매체로 활용하는 경험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참여자들은 그림책을 활용한 질문 생성, 감정 나누기, 독후 활동 등을 직접 경험하면서 학생과의 관계 형성뿐 아니라 상담과 수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

하였다. 또한 그림책을 활용한 상담이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활지도를 실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였다.

“그림책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다양한 그림책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해봄으로써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많이 배웠다.”

(2025년 1학기 참여 학생 A_영어과 소감문)

“그림책을 어떤 방법으로 수업에서 활용하면 좋을지 몰라서 그냥 교과서에 나온 책만 사용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쓸 수 있었구나 싶었고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그림책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실제로 활동을 해본 것도 의미 있었던 것 같다.”

(2025년 2학기 참여 학생 B_국어과 소감문)

“그림책은 초등학생이나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자기이해, 타인 공감, 공동체의 가치가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일반 상담 외의 새로운 상담을 체험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2025년 1학기 참여 학생 C_음악과 소감문)

이상의 결과는 현장교사 참여형 그림책 집단상담이 예비교사들에게 단순한 상담 체험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생활지도와 상담을 실제 교육 현장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전문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직 초등교사가 공동 운영자로 참여하여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그림책 활동을 생활지도와 교과 수업에 연결한 경험은 예비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담역량을 실천적으로 형성하는 데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실행과정을 통해 도출된 프로그램 개선 요구와 환류 방향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실행되면서 참여자들은 그림책 집단상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높은 만족을 나타냈으나, 동시에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요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실행연구의 성찰 과정에서 다음 실행 주기의 계획으로 반영되었으며 프로그램이 상담 활동뿐만 아니라 교사양성교육의 실천적 교육모형으로 발전하는 것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서 경험한 그림책 활용 활동을 실제 초등학교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성취기준과의 연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림책 활용에 대한 관심과 활용 의지는 높았으나, 이를 실제 수업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체계적인 안내가 요구되었다.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을 나중에 해보고 싶은데 그림책을 정확히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국어 시간에 어떤 성취기준을 가지고 수업했는지 예시를 들어주셨다면 이해에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2025년 1학기 참여 학생 E_영어과 소감문)

“자신의 마음을 그림책을 통해 돌아보고 감정과 생각을 표출하는 방법을 그림책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림책을 생동감 있게 읽어주시고 읽어주시는 동시에 그림책 내용과 교과 내용을 연결 지어 활용법도 말씀해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2025년 1학기 참여 학생 F_음악과 소감문)

또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교육실습과 교직생활에 지속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습 기회와 사후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설계하거나 제작하는 경험, 동료들과 지속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학습공동체 운영 등에 대한 요구는 프로그램이 단기 체험에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그림책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실제 예시를 알게 되어서 곧 나갈 교육실습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2023년 2학기 참여 학생 I_과학과 소감문)

“상담실습 프로그램에서 배운 활동을 혼자서 준비하기엔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위한 교사들의 모임이나 공동체 활동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2023년 1학기 참여 학생 K_미술과 소감문)

“그림책을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이 있었다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림책이 어떤 것인지, 눈높이에 맞는 그림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 같다.”

(2023년 1학기 참여 학생 L_미술과 소감문)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을 나타내며 정규 교육과정으로 확대 운영되기를 희망하였다. 반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시간적·신체적 부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함께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더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수업으로 배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수강 신청하여 수업으로 들을 의향이 있습니다. ㅎㅎ”

(2024년 1학기 참여 학생 F_영어과 소감문)

“그림책 활동이 4주간 있다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한 학기 프로그램으로 있었다면 얼마나 힐링되고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림책이 정말 다양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정말 유용할 것 같다.”

(2024년 1학기 참여 학생 G_영어과 소감문)

“풀강인 날 상담이 있는 게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2024년 1학기 참여 학생 I_미술과 소감문)

“무학점이라 조금 힘들었다.”

(2024년 2학기 참여 학생 J_국어과 소감문)

아울러 프로그램이 발전할수록 참여자들은 그림책을 기존의 독서 자료가 아니라 상담과 수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수·학습 매체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더욱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활동을 요구하였다.

“직접 활동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어려웠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2025년 1학기 참여 학생 G_음악과 소감문)

“다 같이 하나의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활동이 더 잘 나타나면 좋을 것 같다. 직접 그림책을 실감 나게 읽고 동화구연? 역할놀이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2025년 1학기 참여 학생 H_음악과 소감문)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만족하고 기존에도 관심 있던 영역에서의 더 넓은 가능성을 본 것

같이 만족스럽습니다.”

(2025년 1학기 참여 학생 I_영어과 소감문)

“굉장히 예상치 못한 수업 도구를 알아볼 수 있어 좋았다.”

(2025년 2학기 참여 학생 J_국어과 소감문)

이상의 결과는 실행연구의 반복적 순환 과정에서 참여자의 요구와 경험이 다음 실행 주기의 개선 방향으로 지속하여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초기에는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 구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실행이 거듭될수록 교육과정 연계, 실습형 활동 확대, 사후 지원 체계 구축 등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요구로 확장되었다. 이는 현장교사 참여형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예비교사의 사회정서역량과 생활지도 및 상담역량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사양성교육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라. 학습공동체 형성과 교사양성교육에서의 지속가능성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예비교사들이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 이해와 공감, 협력의 의미를 새롭게 경험하도록 하는 교육적 장으로 기능하였다. 참여자들은 그림책을 매개로 평소 나누기 어려웠던 감정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동료를 경쟁의 대상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예비교사 교육에서 공동체적 관계 형성과 협력적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그림책 집단상담이 효과적인 교육적 매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강사님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림책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초등학생)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제 주변 동기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며 힐링했던 시간이었어요. 다양한 활동과 예시를 접하면서 저도 그림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2024년 1학기 참여 학생 B_영어과 소감문)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알 수 있었고 그림책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024년 2학기 참여 학생 E_컴퓨터과 소감문)

참여자들은 또한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종료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정규 교육과정 편성이나 장기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지속하여 제기하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예비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교육실습과 교직 현장에서 그림책을 지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과 후속 프로그램,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타났다.

“상담실습 프로그램에서 배운 활동을 혼자서 준비하기엔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위한 교사들의 모임이나 공동체 활동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2023년 1학기 참여 학생 K_미술과 소감문)

“그림책을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이 있었다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림책이 어떤 것인지, 눈높이에 맞는 그림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 같다.”

(2023년 1학기 참여 학생 L_미술과 소감문)

이러한 결과는 그림책 집단상담이 예비교사의 심리적 성장뿐 아니라 협력적 교사공동체 형성과 실천적 전문성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적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과 정규 교육과정 편성, 교육실습과의 연계, 후속 학습공동체 구축을 요구한 점은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가 단기적인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체계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이는 실행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이 단순히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의 심리적 성장과 생활지도·상담 역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과정 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I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초등 예비교사의 정서적 안정과 교직 전문성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현직 초등교사가 참여하는 현장교사 참여형 상담실습의 일환으로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그 실행과정과 참여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특히 실행연구의 계획-실행-관찰-성찰의 순환적 과정을 통해 참여자의 반응과 현장의 요구를 지속하여 반영하며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사전에 완결된

형태로 운영되기보다 참여자의 경험과 현장 맥락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하는 교육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은 예비교사의 자기이해와 심리적 안녕감을 촉진하는 상담 매체일 뿐 아니라 교사 전문성의 토대를 형성하는 교육적 경험으로 작용하였다. 참여자들은 그림책을 단순히 초등 학생을 위한 읽기 자료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감정을 이해하는 매개로 새롭게 경험하였다. 그림책 속 인물과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는 과정은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도록 도왔으며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으로 이어졌다. 특히 집단 안에서 그림책을 함께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 역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학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전문적 성찰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책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꺼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등장인물과 장면이라는 상징적 매개를 통해 내면으로 접근하도록 돕는 특성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이연수, 임진영, 2024). 또한 집단 안에서 감정과 기억, 신념을 자연스럽게 탐색하는 과정은 이재용과 최준섭(2018)이 설명한 집단상담의 자기탐색 경험을 구체적인 교육 장면에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그림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새롭게 바라보고 동료와 공감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심리적 독립과 안녕감의 의미를 스스로 재구성해 나갔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개인의 정서적 치유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경험을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는 교사의 역할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였으며 이는 예비교사 시기의 자기성찰이 교직 전문성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강혜영(1996), 손은령(2017), 이재용과 최준섭(2018)은 예비교사의 자기이해와 정서적 성장이 교사 전문성 발달의 기초가 된다고 논의하였는데, 이 연구는 그림책이라는 매체가 이러한 성찰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교육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OECD(2025)가 제시한 교사 웰빙을 교사 전문성의 핵심 요소로 바라보는 관점은 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자기돌봄과 심리적 안녕의 의미를 이해하는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비교사의 심리적 안녕은 개인의 적응과 함께 학생을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장교사 참여형 그림책 집단상담은 생활지도와 상담을 실제 교육 현장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교사교육의 경험으로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그림책을 활용한 집단상담 활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생활지도와 상담을 단순한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 교실에서 학생과 만나며 실천하는 교육활동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상담 전문성을

갖춘 현직 초등교사가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자로 참여하여 실제 학생 지도와 학부모 상담 사례를 그림책 활동과 연결해 제시한 경험은 예비교사들이 학교 현장의 복합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교직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불안이나 부담을 실제적인 준비와 실천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경험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생활지도와 상담이 별도의 전문 영역이 아니라 교사의 일상적인 교육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적 실천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참여자들은 그림책을 활용하여 학생의 감정을 이해하고 질문을 만들며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 곧 교사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체감하였다. 김현정(2019)은 그림책을 활용한 감성코칭 경험이 학습자의 정서 이해와 공감을 촉진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예비교사의 생활지도와 상담역량 형성이라는 교사교육의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행이 반복될수록 참여자들은 그림책을 상담 매체에 한정하지 않고 교과 수업과 학급경영을 연결하는 교수·학습 매체로 재해석하기 시작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한 질문 생성, 감정 나누기, 독후 활동 등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의 정서와 관계를 이해하는 활동이 교과 수업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육과정 안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김지영과 윤진주(2021)가 그림책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였다면, 이 연구는 예비교사들이 직접 이러한 가능성을 경험하고 자신의 수업으로 확장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변화는 현직 초등교사가 프로그램 운영 전 과정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현장교사가 제시하는 실제 사례를 통해 학생의 행동을 이해하는 관점과 교사의 대응 방식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으며 생활지도와 상담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 판단의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는 예비교사의 실천지식이 실제 교육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현장 기반 상담실습의 교육적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낸다(이재용, 최준섭, 2018).

이러한 결과는 예비교사 교육에서 생활지도와 상담을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과 함께 현직 교사와 함께 실제 사례를 경험하고 성찰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대학 교수와 현직 교사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협력적 모델은 예비교사가 학교 현장의 실제성과 교사 전문성을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적 기반이 될 수 있다(이재용, 차영경, 장은영, 2025). 나아가 교사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역량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김성희, 2011; 최지혜, 유형근, 2023), 예비교사 교육에서도 현장성을 반영한 상담실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실행연구의 순환적 개선 과정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절차와 예비교사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기능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일회적으로 확인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계획-실행-관찰-성찰의 순환을 반복하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는 점이다. 초기 실행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활동 구성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실행이 반복될수록 그림책의 발달적 적합성과 문화적 맥락, 교육과정 연계, 실습 중심 활동, 추수 프로그램 운영 등 프로그램의 개선 범위가 점차 확장되었다. 이는 프로그램의 질이 사전에 완결된 설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경험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참여자들의 요구가 실행이 거듭될수록 변화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초기에는 활동 방식의 다양화나 운영 일정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 자체에 대한 의견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이후에는 교육과정 성취기준과의 연계,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습형 활동, 교육실습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자료와 추수 프로그램 운영 등 장기적인 전문성 발달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요구가 확장되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단순한 비교과 활동이 아니라 교사로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은 예비교사 교육 역시 고정된 교육과정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경험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OECD(2025)는 미래 교사의 전문성을 교사 주체성, 교사 역량, 교사 웰빙이 상호 연결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실행연구의 순환적 개선 과정 역시 예비교사가 수동적인 프로그램 참여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개선과 발전에 함께 참여하는 주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이 연구는 현직 초등교사와 대학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며 성찰하는 협력적 구조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협력은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교원양성기관과 학교 현장을 연결하는 실천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재용, 차영경, 장은영(2025)은 예비교사 교육에서 현장 기반 상담실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재용과 최준섭(2018)은 생활지도와 상담역량은 실제 교육 현장을 경험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실행연구의 관점에서 구체화하면서, 현장교사 참여형 그림책 집단상담이 예비교사의 심리적 성장과 생활지도 및 상담역량을 함께 지원하는 하나의 교사양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단일 교육대학교

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모든 교원양성기관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 등 다양한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과 맥락적 특성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학과 분반 중심으로 운영된 집단과 수강 여건에 따라 편성된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참여자의 공통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C교육대학교는 심화전공으로 분반이 이루어지지만 동일한 초등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질적인 예비교사 집단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그러나 집단 구성 방식이 집단 응집력이나 자기개방 정도와 같은 집단 역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집단 구성 방식에 따른 참여 경험과 집단 역동의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만족도 자료는 실행연구 과정에서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진단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동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 반복측정이나 비교집단 설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차수 간 평균 변화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한 사전·사후 설계와 장기 추적 연구를 병행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도 몇 가지 보완이 요구된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비교과 형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학업과 병행해야 하는 시간적 부담을 경험하였다. 특히 생활지도와 상담 교과와 연계된 P/F 필수 이수 과정임에도 일부 참여자는 이를 별도의 비교과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프로그램 안내가 학기 초에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운영 방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교육과정 안내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과 필수 이수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여 참여자들이 충분한 준비 속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운영된 방학 중 추수 프로그램은 정규 프로그램 이후에도 그림책 활용 경험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향후에는 추수 프로그램과 교육실습을 연계하여 그림책 활용 경험이 실제 교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확장되는지를 지속하여 추적·분석한다면 예비교사의 전문성 발달 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현장교사 참여형 그림책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 예비교사의 자기이해와 심리적 안녕감뿐 아니라 생활지도 및 상담역량 형성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실행연구의 순환적 과정을 통해 참여자의 경험과 현

장 요구를 지속하여 반영하며 프로그램을 정교화하였다는 점은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이는 교원양성교육에서 정서적 성장과 현장 기반의 실천 경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향후 교원양성기관에서도 이러한 현장교사 참여형 상담실습이 예비교사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실제 교육실습과 초기 교직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확장되는지를 장기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예비교사의 심리적 성장과 실천적 전문성을 함께 지원하는 교사양성 모델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논문 투고일: 2026. 5. 2. ※ 논문 수정일: 2026. 7. 12. ※ 게재 확정일: 2026. 7. 30.

〈참고문헌〉

- 강혜영(1996).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의 효율적 아동 지도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學生生活研究**, 22, 73-101.
- 김유진, 최준섭(2022). 초등학교 특수학생의 사회정서역량 신장을 위한 그림책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특수교사의 수행경험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9), 551-573.
- 김운정(2016). **친구에게**. 국민서관.
- 김지영, 윤진주(2021). 그림책 중심의 비교과 교육과정 적용 이후 나타난 예비유아교사의 그림책에 대한 생각의 변화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10(2), 119-137.
- 김하민, 유형근(2024). 심리적으로 소진된 중등교사의 긍정심리자본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교원교육**, 40(5), 57-78.
- 김현정(2019). 그림책을 활용한 감성코칭이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9), 421-444.
- 류아영, 유순화, 최정임(2020). 초·중등 교사 대상 집단상담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문화연구**, 26(5), 469-491.
- 문가람, 유형근(2023). 심리적으로 소진된 초등교사의 동료 및 관리자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교원교육**, 39(4), 93-112.
- 박은주, 박재우(2024). 그림책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언어통제 및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계슈탈트상담연구**, 14(1), 57-75.
- 박현주, 신주란, 편은진(2024). 미래 교사 양성 교육을 위한 예비교사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의 중요성과 준비도 인식 조사. **교사교육연구**, 63(4), 542-560.
- 사이다(2017). **고구마구마**. 반달.
- 손강숙, 정소미(2018). 중등 예비교사의 교직과목 집단상담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 시설환경**, 16(4), 69-78.
- 손은령(2017). 예비교사 대상 상담 교육의 실천사례.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2(2), 27-41.
- 영민(2012). **난 네가 부러워**. 뜨인돌어린이.
- 오귀남(1999). Quality Teacher로 이끄는 예비교사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학생생활연구**, 25, 101-130.
- 유설화(2018). **슈퍼거북**. 책읽는곰.
- 유신복, 송영명(2025). 초·중등 신규교사의 핵심역량이 수업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5(3), 271-290.
- 이용숙, 김영미, 김영천, 이혁규, 조덕주(2004).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통한 연구와 교육실천의 연계성 강화. **열린교육연구**, 12(1), 363-402.
- 이지은(2019). **팔방수의 전설**. 웅진주니어.
- 이지은(2020). **이파라파나무나무**. 사계절.
- 이지은(2021). **친구의 전설**. 웅진주니어.
- 이선영, 손현동(2023). 인지행동치료(CBT) 이론에 기반한 그림책 활용 집단상담 프로그램 적용 사례 연구.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학술대회**, 2023.01, 272-283.
- 이은진, 이길동(2012). 자아성장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가 예비유아교사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2(2), 125-144.

- 이연수, 임진영(2024). 그림책을 활용한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교우관계와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효과. **초등상담연구**, 23(3), 447-464.
- 이정구, 은혁기(2024).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긍정심리학 기반 그림책 상담프로그램 개발. **초등교육연구**, 35.2.
- 이재용, 차영경, 장은영(2025). 초등 예비교사를 위한 온라인 마음성장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연구. **초등상담연구**, 24(1), 77-104.
- 이재용, 최준섭(2018). 초등 예비교사의 집단상담 참여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초등교육연구**, 31(4), 97-124.
- 이현정(2021). **들어와 들어와**. 달달북스.
- 장은영(2025). 담임 역할의 부담을 계기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선택한 초등교사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초등교육연구**, 38(4), 101-132.
- 채인선(2010). **나는 나의 주인**. 토토북.
- 최성호, 정정훈, 정상원(2016). 질적 내용 분석의 개념과 절차. **질적탐구**, 2(1), 127-155.
- 현미정, 윤경희(2016). 초등학교 교사효능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교사교육연구**, 55(1), 93-107.
- Kemmis, S., & McTaggart, R. (1988). *The action research planner* (3rd ed.). Geelong, Australia: Deakin University Press.
- Klausemeyer, J. (2013). **이 작은 책을 펼쳐봐**, 이상희 역. 비룡소.
- Laima. (2018). **불 뿜는 용**, 김금령 역. 천개의바람.
- Mayring, P. (2000).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Forum Qualitative Sozialforschung/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1(2), Article 20.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5). *OECD Teaching Compass: Reimagining teachers as agents of curriculum change* (OECD Education Policy Perspectives No. 123). OECD Publishing.
- Stenbeck, K. (2020). **나는 가끔 화가 나요!**, 허서운 역. 머스트비.
- Veenman, S. (1984). Perceived problems of beginning teacher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4(2), 143-178.
- Verde, S. (2021). **나는 () 사람이에요**, 김여진 역. 위즈덤하우스.
- Veyron-Spanol, E. (2018). **똑, 딱**, 최혜진 역. 여유당.

〈Abstract〉

An Action Research on a Field Teacher-Participatory Picture Book-Based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Lee, Yeonsu¹, Lee, Jaeyong²

This study developed and implemented a picture book-based group counseling program as a field teacher-participatory counseling practicum to promote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psychological independence, well-being, and competencies in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Using an action research approach, the study examined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the educational meanings of participants' experiences. Participants were 173 third-year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at C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Chungbuk Province, South Korea,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between 2022 and 2025. The program was continuously refined through iterative cycles of planning, acting, observing, and reflecting. Data were collected from reflective journals, session reports, and program evaluation reports and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program promoted participants' self-understanding, understanding of 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motional growth. The involvement of experienced in-service elementary teachers helped participants understand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within authentic school contexts and strengthened their confidence in counseling practice. Furthermore, the cyclical action research process continuously incorporated participants' feedback and contextual needs, leading to the refinement of the program and expanding the educational use of picture books in teacher educ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 field teacher-participatory picture book-based group counseling program can serve as a practical teacher education model that integrates emotional growth with counseling competence. It also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sustainable implementation of field-based counseling practicum programs in teacher education.

Keywords :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field teacher participation, picture book-based group counseling program, action research

1. Teacher, Hoein Elementary School, lys0929@naver.com (Lead Author)

2. Associate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ducounsel@cje.ac.kr (Corresponding Author)